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해 인선이 순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철호 신임 정부수석 임명을 발표한 언론 브리핑에서 늦어지는 총리 인선 시기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가 안팎에서는 새 총리 인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의 회동 이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관련, "지난 금요일(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

고 있는 경북대구지역 주호영 의원이 야당에 '작'이 없어 동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1차 지명자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구민주당계 대표 출신인 김한길 전 장관 및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야당 사정에 정통해 야당을 상대할 적임자라는 점에서 계속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의 총리 인선안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한길·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내심 부정적인 반면, 주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A 의원은 "친윤색이 얼어 부담스럽지 않다"며 긍정적인 시각이다.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제조업 대전환' 종합 청사진 그린다



정진석 비서실장 소개하는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 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소개하고 있다.

경북도, '산업혁신협의회' 운영 AI 등 10대 분야 전문가 구성 연말까지 '증장기 이행안' 마련

경북도가 22일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혁신협의회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총괄협의회장을 맡은 김현덕 경북대 교수와 인공지능, 반도체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혁신협의회 운영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식품, 방위산업, 섬유 등 10개 분과로 구성했으며, 모든 분과의 종합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총괄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함께 운영한다.

그동안 경북의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원인 분석과 실태 파악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고 경북의 경제,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도의 종합적 산업발전 이행안을 만든다.

이행안은 AI가 산업현장을 넘어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서 '인공지능을 융합한 제조업 대전환'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전통적인 경북 제조업인 전자정밀 기기, 비금속금속제품 산업 등의 생산성 혁신과 고부가가치화, 신성장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전략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경북 증장기 산업혁신 이행안 초안에 대한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5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연말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 수립 이후에는 연도별, 부문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기술발전, 산업정책 동향 변화 등을 반영해 이행안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경제상황에 상시 대응하는 운영 체계를 수립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경제, 산업구조, 지역의 강점과 약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혁신적인 이행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산학연관 모두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정부 "의대교수 사직, 수리 사례 없어 늦기 전에 '의료계 대안' 제시해 주길"

30일 의대증원 절차 마무리 '집단행동' 멈추고 대화 촉구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면서 지난달 25일 제출한 사직서가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면서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서로 다르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일부 대학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들이 다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

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병원에 제출된 것도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진행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에 당장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면에 계속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

인적 쇄신 '시동'...협치·국회와 소통 가교 역할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18·19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써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추진을



홍철호 정무수석

될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이 아니겠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임명 배경에 대해 "정진석 의원이 소통 잘해 통합 정치 이끄는 데 잘 보좌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며 "그

이어서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며 "그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 모두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나다고 추천받았다"며 "함께 일해보거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지만 잘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함께 교체한 배경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정무수석을 더 빨리 임명해 신임 수석에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洪 "박정희 기념사업 당당히 추진" 2면 | 포스코 임원 급여 최대 20% 반납 3면 |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영주 11면

탄소는 제로(ZERO) 행복은 배로(Double) 포항은 새로(New)

탄소 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환경도시 포항

포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50 포항형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도시를 구현하여 다가오는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환경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포항시